

## 1950년대 충북지역 유지충의 변동과 그 성격

김 양 식\*

- I. 머리말 III. 1950년대 충북지역 유지충의 분포와 성격  
II. 1950년대 충북지역 유지충의 변동 IV. 맷음말

## I. 머리말

오늘날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의 하나는 지연·학연·혈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기주의이다. 이는 사회의 불합리성을 확대 재생산하고 원칙과 기본이 없는 사회를 조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지역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거나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층의 갈등을 조장하여 조화로운 지역 발전을 해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균형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뿌리깊은 연고주의 내지 지역주의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같은 지역주의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인맥을 중심으로 작동하였는지 등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와 같은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일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특정지역을 단위로 한 연구 역시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근현대사 전공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충청북도의 유지충에 관한 연구를 시도할까 한다. 1950년대의 지역사회는 일제시대에 형성된 사회구조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재편된 결과이자, 현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만큼 지역사회를 이끈 유지충에 관한 이해는 지역사회의 변모양상과 그 원리를 파악하고 현실사회의 모순에 대한 일정한 역사적 경험과 해결방향을 제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1950년대 충북지역 유지충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동하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유지충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의 대립과 남북 분단은 남한 지역사회에서 좌익세력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우익 진영 역시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정권의 확대 재생산, 몇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 정당의 변화,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 농지개혁과 귀속사업체 불하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극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치·경제·행정 등을 움직이는 유지충 또한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충북지역의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한국전쟁 전후의 유지충 분석을 통해 장기동태적으로 해명할까 한다.

둘째, 위와 같은 변화과정을 거쳐 형성된 충북지역의 유지충에 대한 성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55년에 간행된 『충북인사론』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며, 특히 유지충의 관계·학연·지연(출생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해명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재적인 문제의식을 견지하고자 한다. 즉, 충북지역은 다른 도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소외되었고 저발전이 지속되었다. 충청북도내 일부 시군은 20세기 상당 기간 고립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형성된 소외의식이 지금까지도 작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충북지역이 전국에서 낙후되고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지역으로 전락한 데에는 유지충의 성격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그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유지집단을 일일이 분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 유지집단을 분석하고 그 성향을 규정하는 일은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를 뿐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후일의 과제로 미룬다.

여기서는 지역 전체를 하나로 둑어 유지층의 변모양상과 그 성격을 해명할 것이며, 그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1950년대 한국 지역사회의 일 단면을 밝히고 오늘날의 지역문제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으면 한다.

## II. 1950년대 충북지역 유지층의 변동

### 1. 대지주층의 몰락

일제시대 충북지역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주제가 발달하였다. 1930년 충북지역의 지주는 4,130명으로, 그중 충북지역 거주자로서 100정보 이상 소유한 한국인 대지주는 모두 16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1910년대에 대지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친일활동이나 또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 소유면적을 확대하였다.<sup>1)</sup> 해방 직전인 1943년에 500석 이상 추수한 대지주는 모두 30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면적은 논 1,619정보와 밭 912정보 등 총 2,531정보였다.

그렇지만 지주제는 해방 이후 위기를 맞고 있었다. 토지개혁에 위기를 느끼고 생활난에 곤란을 겪던 지주들은 토지를 방매하였다. 그에 따라 지주층은 감소하고 영세자작농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1946년에 20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는 1945년보다 91명이 줄어든 606명이었다.<sup>2)</sup> 500석 이상 추수하는 대지주도 1943년보다 17명이 줄어든 13명이었고 소유면적도 33.6%가 감소된 1,680정보였다.<sup>3)</sup>

이 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어 1945년부터 1950년 농지개혁사업이 실시될 때까지 지주에 의해 처분된 농지는 농지개혁에 의해 처리된 면적의 거의 두 배에 달하였다.<sup>4)</sup> 그러한 과정을 거쳐 1950년 3월부터 시작된 농지개혁은 최종적으로 지주계급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1) 忠淸北道, 『1930年調査 小作慣行調査書』(1932), 179~180, 230~231쪽.

2) 朝鮮銀行 調査部, 『朝鮮經濟年報』(1948年版), I-32~36쪽.

3) 農林局 農地局, 『農地改革統計要覽』(1951), 9쪽.

4) 정미애, 「해방 이후 농지개혁이 지주계급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1991), 17~21쪽 참조.

농지개혁 당시 被分配農地가 20정보 이상이거나 補償石數가 500석 이상인 충북 지역 대지주는 50명이었다. 그중 은성장학회, 충북향교재단, 대성학원 충청북도, 법주사, 충북불교재단, 영동학교비 등과 같은 단체·기관을 제외하면, 개인은 모두 43명으로 <표 1>과 같다<sup>5)</sup> 이들이 소유한 논밭은 모두 3,199정보로 충북지역 전체 분배농지 25,318정보의 7.9%에 이르렀다.

<표 1> 농지개혁시 충청북도 피분배 대지주명단

지역	성명	면적	지역	성명	면적	지역	성명	면적
청주	閔周植	129.6	충주	鄭寅始	23.4	옥천	李定宰	15.6
	閔丙翊	48.7		李殷成	37.5	진천	申慶澈	38.5
	閔丙喆	56.8		李春雄	54.7		金永龜	29.1
	閔丙珏	20.7		金利燮	35.5		金仁煥	32.4
	閔丙赫	21.9		權泰甲	18.8	청원	孫大均	27.6
	閔庚植	34.4		權泰東	28.8		金學賢	51.9
	閔泳弼	43.4		卞熙壽	25.2		金洛基	22.3
	閔完植	16.7	괴산	曹圭復	23.4		李容求	116.7
	閔庭植	35.7		金禹錫	18.5		李重冕	27.5
	申啓休	21.8	보은	宋在喆	33.2		李愚勉	28.9
	鄭錫元	38.1	영동	孫在夏	84.3		趙漢植	29.8
	金星會	36.1		姜世元	26.3		金永勳	27.0
	龐淳九	18.1	옥천	陸鍾寬	25.1		李豐雨	33.1
충주	權熙宗	19.4		尹基炳	23.8			
	崔榮鳳	32.2		趙晚夏	83.0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地改革時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 名簿』 30~32쪽

\* 청주 閔丙翊은 閔丙喆로 되어 있으나, 민주식의 장남은 민병익 후일 丙山으로 개명이다

이들 43명은 일제시대 충북지역의 유지층을 구성한 대지주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이들이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어떠한 정치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아래와

5)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地改革時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 名簿』 30~32쪽

같은 자료에 등장하는 인명과 일일이 대조해 보았다.

- 충북지역 귀속사업체 임대·관리자 55명(『經濟年鑑』, 1949).
- 충북지역 귀속사업체 불하인 52명(『法人臺帳』, 연도미상).
- 1948년 충북지역 상공업자 103명(『全國商工信用錄』, 中外商工情報社, 1948).
- 1954년 충북지역 제조업자 169명(『全國製造業要覽』, 大韓商工會議所, 1955).
- 1959년 충북지역 광업·제조업자 488명(『鑛業 및 製造業事業體名簿』, 韓國產業銀行, 1959).
- 1955년 충북 인사 480명(金思達, 『忠北人士論』, 清州文化社, 1955).
- 1957년 충북 인사 56명(忠清人士集編纂委員會, 『忠清人士集』, 1957).
- 1964년 충북 인사 604명(法律新聞 忠北支社, 『忠北人士錄』, 上黨出版社, 1964).
- 제1~6대(1948~1963) 충북지역 국회의원 후보 302명(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 1963)
- 1946~1961년 청주상공회의소 의원 206명(清州商工會議所, 『清州商議七年史』, 1989).

위 자료에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던 고위공직자, 교육자, 상공인, 정치인, 언론출판인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 자료에 수록된 인명과 대지주 명단을 대조한 결과, 확인되는 인물은 43명 중 불과 閔完植·閔庭植·李春雄·孫在夏 4명 뿐이다.

이춘웅은 1949년에 충북상공회의소 의원을 역임하였으나 이후 행적을 알 수 없다. 민정식은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 청원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하였다. 이때 민정식의 직업은 중졸의 학력과 상업 경력을 가진 회사원이었는데<sup>6)</sup>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민완식은 귀속사업체인 민우인쇄소를 임대 경영하였고 손재하는 귀속사업체인 영동주조회사를 관리하였다.<sup>7)</sup> 민완식은 민우인쇄소를 1959년까지도 경영하고 있

6)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3), 110 쪽

었던 것으로 보아 불하받은 것으로 보이나, 1963년 민우인쇄소의 대표는 이미 민태식으로 바뀌어 있었다.<sup>8)</sup> 존재하는 1949년 8월에 반민특위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고 특별검찰부의 최종 결정에서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는데,<sup>9)</sup> 그 뒤 존재하는 영동을 떠나 현재까지 행적을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충북지역 대지주들은 농지개혁 이후 정계나 경제계 등으로 진출하지 못한 채 몰락하였다. 개인으로써는 가장 많은 129.6정보의 농지를 분배당한 閔周植은 일제시대부터 충북 최고의 부호로 손꼽히던 閔泳殷의 장남으로 해방 후 농지개혁과 한국전쟁의 여파로 쇠잔하고 말았다.<sup>10)</sup> 또한 그의 세 아들도 20정보 이상 피분배 지주명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충북을 떠나갔고 가세가 기울어 힘든 여생을 마치었다고 한다.

괴산에 살던 조규복과 김우석도 한국전쟁 이후 어느 시점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다.<sup>11)</sup> 진천의 신경철은 농지개혁 이후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진천향교 전교를, 김영구는 농지개혁 이후에도 많은 토지를 경영하였고 김인환은 가세가 기울고絕孫되었다고 한다.<sup>12)</sup>

이와 같이 일제시대에 성장한 충북지역의 대지주들은 농지개혁과 뒤이은 한국전쟁의 여파로 거의 모두 몰락하였다. 일부는 고향에서 중소지주로 전락하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고향에 남아 있는 경우도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또는 면장과 같은 공무원, 상공인 등으로도 진출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곧 그들의 존재기반이었던 토지와 삶의 방식이었던 전통사회가 붕괴된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

## 2. 신흥 소상공인층의 성장

1948년 1월말 충북지역의 총 사업체수(공업·운수·광업·회사)는 1947년에 조

7) 朝鮮銀行 調査部, 『經濟年鑑』(1949), III-79~147쪽.

8) 金甲龍, 『忠北綜合商工報』(上堂出版社, 1963), 15쪽.

9) 『殉國』, 1999년 9월호, 「풀어서 본 반민특위 재판기록 24( 존재하)」, 93~101쪽

10) 이승우, 『도정 반세기』(충청리뷰사, 1996), 98~99쪽

11) 김광식(36년생, 괴산 출신, 현 청주 거주, 전고인쇄박물관장) 중언

12) 봉원용(30년생, 진천 출신, 현 진천 상산고적회장) 중언

사된 327(공업·광업)개보다<sup>13)</sup> 격감된 215개였다. 그중 관영은 65개, 민영은 150개였다.<sup>14)</sup> 이는 남한 총 사업체 5,404 개의 4.0%에 지나지 않았다. 충북지역의 종업원수 역시 남한 전체의 3.2%인 7,169명이었다. 사업체수보다 종업원수의 비중이 낮은 것은 그만큼 충북지역의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 중심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1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충북지역 사업체가 남한 지역 총 347개중 10개업체인 2.9%에 지나지 않았던 데서도 알 수 있다.<sup>15)</sup>

<표 2> 충북지역 사업체 및 노동자 구성비율(1948년 1월말)

업체 지역	사업체 구성비율					노동자 구성비율				
	총수	공업	광업	운수	회사	총수	기술자	직공	사무원	기타
충북	215	72.1	3.7	17.7	6.5	7,169	5.5	66.4	12.5	16.0
남한	5,404	81.1	1.4	8.9	8.6	223,030	5.2	58.8	14.8	21.3

\*자료: 南朝鮮過渡政府 勞動部, 『第二回 南朝鮮勞動統計調査結果報告』(1948).

朝鮮銀行 調査部, 『經濟年鑑』(1949年版), IV-178쪽.

또 <표 2>에서 충북지역의 노동자 구성이 남한 전체에 비해 직공의 비율이 높고 사무원의 비율이 낮은 것도 충북지역의 사업체가 영세한 소규모였기 때문이다. 그 같은 영세성은 충북지역의 공업화 정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표 2>에서 충북지역의 공업 비중은 72.1%로 남한 전체의 81.1%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실정에서 해방기 충북지역 경제계를 이끈 인물은 상공회의소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직후 충북지역의 상공인들은 일제가 전시경제를 통제할 목적으로 1944년 8월에 만든 충청북도 상공경제회를 충청북도 상공회의소로 재편하였는데, 그 때가 1946년 6월이었다. 그 뒤 충청북도상공회의소는 1949년 1월에 창립된 청주상공회의소로 흡수되었다. 그 때부터 청주상공회의소는 충북을 대표하는 상공인단체로 운영되었는데,<sup>16)</sup> 이들 상공회의소는 해방 이후 물자 부족과 인플레 등으로 과생된

13) 朝鮮銀行 調査部, 『朝鮮經濟年報』(1948年版), I-323~324쪽.

14) 南朝鮮過渡政府 中央經濟委員會, 『南朝鮮產業勞動力及賃金調查』(1946), 19쪽.

15) 朝鮮銀行 調査部, 『經濟年鑑』(1949年版), IV-176~177쪽.

16) 청주상공회의소, 『淸州商議七十年史』(淸주상공회의소, 1989), 241~243쪽.

경제 곤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즉, 해방 직후 물자운영조합 설립을 유도하였고 전화복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였으며, 괴산수력발전소 완공에 진력하는 동시에 법원청사 신축운동도 전개하였다.<sup>17)</sup>

이 같은 활동을 벌인 충북상공회의소나 청주상공회의소 의원을 역임한 인물 중 한국전쟁 이전에 활동한 의원은 모두 48명으로,<sup>18)</sup> 그중 회장이나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은 박노태, 박창현, 허광, 김재홍, 신승휴, 최윤식, 최동선 등이다.

1946년에 충북상공회의소 초대 회장을 지낸 박노태는 1936년에 제천군수를 역임하였다.<sup>19)</sup> 해방 이후에는 1948년에 조치원주성공장·청주견직공장·청주정미공장·충주정미공장 등 4개의 공장을 가진 대동흥업사 사장이었을 뿐 아니라<sup>20)</sup> 중앙관할귀속사업체인 충북산업주식회사 관리인이었다.<sup>21)</sup> 박창현은 충북상공회의소 초대 부회장으로 미군정기에 충북직물공업조합장을 지냈다.<sup>22)</sup> 김재홍은 1949년 충북상공회의소 2대 부회장으로서 지방귀속사업체인 금광공업주식회사 관리인이었다.<sup>23)</sup> 신승휴는 1949년 4월에 청주상공회의소 초대 회장에 당선되었는데, 충북 지역 생활필수품 배급을 담당하기 위해 1947년에 조직된 충북물자운영조합장을 역임하였다.<sup>24)</sup> 최윤식은 청주상공회의소 초대 부회장으로 충북피복공업조합장과 양복상업조합장 등을 역임하였다.<sup>25)</sup>

이것으로 보아 한국전쟁 이전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귀속재산을 관리하거나 각종 조합장을 맡은 친권력형 인물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런 만큼 이들의 향배는 권력 변수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그들 중 최윤식 외에는 한국전쟁 이후 모두 청주상공회의소 의원을 역임한 일이 없었다.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인물도 박창현 밖에 없었으며,<sup>26)</sup>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후보로도 출마한 일이 없었다.<sup>27)</sup>

17) 청주근세60년사회편찬위원회, 『청주근세60년사화』(1985), 101~111쪽 참조

18) 이하 충북상공회의소와 청주상공회의소 역대 의원은 청주상공회의소, 앞의 책, 1063~1065쪽 참조

1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1936), 255쪽

20) 中外商工情報社, 『全國商工信用錄』(1948), 1쪽

21) 朝鮮銀行 調査部, 『朝鮮年鑑』(1948年版), III-84쪽

22) 위의 책, III-75쪽

23) 위와 같음.

24) 위와 같음.

25) 위의 책, III-136쪽

26) 財務部, 『法人臺帳』(연도미상), 충청북도편 참조

이렇게 한국전쟁 이전에 충북 지역경제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퇴조함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지역경제계를 이끌었다. 한국전쟁 이전에 상공회의소 의원을 지낸 인물 48명 중, 1952년 이후에도 의원을 역임한 자는 14명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청주상공회의소가 법인으로 등록된 1954년 이후 제1~3대(1954.1~1961.1) 회장단에 취임한 자는 김유복(중선화물자동차주식회사 사장), 최윤식(우리산업사 대표), 김병한(충청북도곡물협회장), 이도영(충북신보 사장), 김동벽(충북석탄주식회사 사장)이었고, 3선 의원은 김열경(한양모타스·오륜상공사 대표), 김종권(UN 성냥공장 대표), 민평식(진천주유소 대표), 박홍용(대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사장), 2선 의원은 이민우(민우직물공장 대표), 정상봉(삼화토건 사장), 정영수(한국운수 <현 대한통운> 청주지점장), 신기원(남한제사 청주공장장), 채홍열(삼양상회 대표)이었다. 이들 14명중 한국전쟁 이전에 의원을 지낸 인물은 김유복, 최윤식, 민평식, 정영수 등 4명에 불과하다<sup>28)</sup> 나머지 10명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등장한 신 흥 상공인이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충북 경제계 인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제계 인사의 변동을 좌우한 변수는 첫째로 귀속사업체 불하였다. 청주상공회의소 제1~3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지낸 5명중 김유복은 충북지역 제일의 운수회사인 충북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1953년 12월에, 김동벽은 조선산업주식회사를 1954년 2월에 불하받았다.<sup>29)</sup> 이도영은 충북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한제사주식회사를 1951년에 불하받았을 뿐 아니라,<sup>30)</sup> 유일한 지역 일간신문으로 1954년말 현재 발행부수 8천부였던 忠北新報(현 충청일보)와 주간으로 간행되던 충북 경찰·청원·영동·괴산공보 사장을 맡고 있었다.<sup>31)</sup> 1950년 5월에는 2 대 국회의원(청원 갑)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당시 귀속사업체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정치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지 않으면 용이하지 않았던 만큼,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친권력층이 경제계 주도층으로 새롭게 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1968), 충청북도편 참조

28) 청주상공회의소, 『淸州商議七十年史』(청주상공회의소, 1989), 1063~1064쪽.

29) 財務部, 『法人臺帳』, 충청북도편 참조

30) 清州文化社, 『忠北寶鑑』(1956), 197 쪽

31) 충청북도, 『道勢一覽』(忠北新報社, 1955), 31~32 쪽

다음으로 한국전쟁 이후 경제계 인사의 변동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기업체의 부침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표 3>에서 한국전쟁 이전 251 개였던 충북지역의 광업 및 공장수는 1951년말 155 개로 격감된 뒤 서서히 증가; 1958년말 329 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민간기업체의 왕성한 설립·성장이 이루어졌다.

<표 3> 한국전쟁 전후 충북지역 광업 및 공장수

시기 \ 업종	광업	섬유업	금속기계업	화학공업	식료품업	요업	기타 공업	계
6.25 이전	54	65	31	25	30	32	14	251
1951년말	30	29	17	19	27	22	11	155
1953년말	63	69	14	11	15	11	14	197
1958년말	45	88	38	138	?	?	65	329

\*자료: 6.25전후는 『忠北年鑑』, 國民日報社, 1952, 146쪽, 1953년말은 『道勢一覽』, 忠清北道, 1955, 87~89

쪽; 1958년말은 『道勢一覽』, 忠清北道, 1960, 191~197쪽 참조

\*계는 광업을 제외한 것이며 귀속사업체 포함한 숫자임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 전후로 지역경제의 큰 변동이 초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상공인층이 부상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청주상공회의소 의원 중 2선 이상을 지낸 9명중(회장단 제외) 한국전쟁 이전에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원은 정영수가 유일하다. 심지어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에 의원을 한번이라도 역임한 의원 중에도 한국전쟁 이전에 사업체를 경영한 예는 극히 드물었다.<sup>32)</sup>

특히 충북 지역경제는 중소규모의 사업체 위주였다. 1954년말 현재 충북지역은 168개의 제조업체가 있었는데, 이는 전국의 3.6%에 불과하며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도 40여개에 지나지 않았다.<sup>33)</sup> 이 같은 실정에서 충북지역 상공업계를 이끈 인사는 자연히 친권력형 인물로 치우치거나 영세한 자본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실제 1954년 청주상공회의소 의원 30명중 50명 이상을 고용한 제조업을 경영

32) 中外商工情報社, 『全國商工信用錄』(1948);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要錄』(1939·1942) 상호대조함.

33) 大韓商工會議所, 『全國製造業要覽』(1955).

하던 사장은 4명에 불과하였다.<sup>34)</sup> 그 때문에 청주상공회의소 의원도 자주 교체되었는데, 1957년 1월에 제2대 의원으로 선출된 청주상공회의소 의원 20명 중 재선 의원은 모두 11명이었고 1960년 1월 제3대 의원 선거에서는 20명의 일반의원 가운데 10명만이 재선 또는 3선이었다.<sup>35)</sup> 이 같은 50%에 육박하던 의원 변동율은 정치적인 변수와 불안한 경제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충북 지역경제를 이끈 인사는 귀속사업체를 불하받거나 새롭게 제조업을 경영한 신흥 상공인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었고, 자본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에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청주상공회의소는 公法人으로 개편된 1954년 이후에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으며, 정치적인 영향력 역시 발휘하지 못하였다.<sup>36)</sup>

### 3. 새로운 정치집단의 형성

한국전쟁 직후 제3대 국회의원선거가 1954년 5월 20일 시행되었다. 선거 결과는 한국전쟁을 치루면서 겪은 사회적 경험과 전쟁기간 동안 형성된 이승만 중심의 권력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쟁 직전에 시행된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무소속 당선자 비율이 60%였던 데 반해, 제3대는 33.5%로 낮아졌다. 반면에 여당 당선자는 제2대 11.4%(대한국민당)에서 제3대 56.2%(자유당)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는 이승권정권의 재생산권력구조가 확대 강화된데 따른 것이나, 무소속 당선자가 33.5%나 되고 무소속 득표율이 47.9%에 이른 점은 여전히 이승권정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sup>37)</sup>

이 같은 남한 전체의 추이는 12개의 선거구가 있던 충북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충북지역에서 1950년에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무소속 7명(58.3%), 친여

34) 위와 같음.

35) 청주상공회의소, 『淸州商議七十年史』(청주상공회의소, 1989), 303~305쪽.

36) 청주근세60년사화편찬위원회, 『淸주근세60년사화』(1985), 111쪽

37)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1963). 이하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같은 자료에 의거함.

극우세력인 대한국민당 3명(25.0%), 야당극우세력인 민주국민당 2명(16.7%)이었다. 이는 전국의 정당별 당선자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무소속은 전국의 60%에 비해 약간 낮고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은 전국의 11.4%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전 충북지역의 정치지형은 미군정기 때 충북지역의 사회구조가 보수적이었던 연장선상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보수화되고 친이승만정권에 기울어 있었다. 그렇지만 무소속 의원이 전체의 58.3%에 이를 뿐 아니라, 무소속 후부의 전체 득표율이 전국의 62.9%보다 높은 65.4%였다. 이것으로 보아 한국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충북지역은 현실비판적인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의 선거에서는 무소속 3명(25.0%), 자유당 8명(66.6%), 민주국민당 1명으로 자유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국의 평균치보다 무소속이 8% 낮고 자유당이 10% 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는 충북 지역의 정치권력구조가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친권력지향쪽으로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다. 1958년 제4 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자유당 소속이 전체 13명중 61.5%인 8명이었다. 이는 전국의 자유당 당선율 54.1%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구조의 변동은 변화되는 정치지형과 맞물려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들에 의해서 추동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큰 폭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제헌국회의원선거 후보자 54명중 1950년 2 대 선거에 출마한 자는 53.7%였으나, 2대 후보 146명중 전쟁 직후인 1954년 3대 선거에 출마한 자는 19.9%인 29명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3대 후보로서 1958년에 실시된 4대 후보로 출마한 자는 34.3%로 상승하였다.

충청북도 12개의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경우도 제헌국회의원 중 2 대의원에 당선된 자는 2명, 2대의원으로서 3대의원에 당선된 자는 4명, 3대의원으로서 4 대의원에 당선된 자는 3명 뿐이었다. 재선율이 16~33%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충북 지역 국회의원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표 4>에서 한국전쟁 이전 제헌의회와 1950년 제2대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22명중 제3 대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6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전쟁 직후인 1954년 선거에서 당선된 12 명중 제4 · 5대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8명이나 되었다. 역으로 1960년 7월에 시행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10명 중 한국전쟁 이전인 제1·2대에 의원을 역임한 자는 3명(김기철·신각휴·이충환)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한국전쟁 이후인 제3·4대 의원들이다.

<표 4> 제1~4대 충북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청주	청원갑	청원을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제천	단양
1대 (1948)	朴己云	洪淳玉	李萬根	金敎賢	鄭求參 (獨裁)	朴愚京	宋必滿 (한민당)	延秉昊 (국민회)	李宜相 (청년단)	金基喆	柳鴻烈	趙鍾勝
2대 (1950)	閔泳復	李道榮	郭義榮	崔勉洙 (국민당)	申珏休 (민국당)	成得煥 (민국당)	李忠煥 (국민당)	”	李鶴林	趙大衍	韓弼洙	”
3대 (1954) (제헌)	朴己云	申正浩	”	金善佑 (자유당)	”	崔淳周 (자유당)	”	安東濬 (자유당)	”	金基喆	李泰鎔	張英根
4대 (1958) (민주당)	李敏雨	吳範秀	”	”	權福仁	閔壯植	鄭雲甲 (민주당)	金元泰 (자유당)	金周默 (민주당)	洪炳玗 (자유당)	”	趙鍾湜

\*자료: 中央選舉管理委員會『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1963.

\*소속 정당은 제1대가(독촉)=대한독립촉성국민회(청년단)=대동청년단 제2대가(국민당)=대한국민당(민국당)=민주국민당, 제3대가(제헌)=제헌국회의원동지회.

특히 한국전쟁 이전 제1·2대 국회의원은 미군정기 때의 반공청년운동가(박기운·민영복·김기철·김선우), 정치가(이의상), 해방 전후의 공직자(박기운·이만근·유홍렬·조종승·김교현·곽의영), 토착 유지(정구삼)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소속 정당은 24명 중 무소속이 66.7% 16명이나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 이후 제3·4대 국회의원은 3대 선거에서 재당선된 6명 외에 주로 회사 경영자나 회사원 중에서 새로 충원되었다. 1954년 제3대 선거 당선자 중 직업이 회사원으로 분류된 초선의원이 3명(최순주·이태용·장영근), 1958년 제4대 선거에서는 직업이 사장(이민우·홍병각·오범수)이거나 회사원(권복인·정상희)인 초선의원이 5명이나 되었다. 출판업자와 기자도 각각 1명이었다. 이들은 청주의 이민우 외에는 모두 자유당 소속이었다.

정치 지향성이 강한 미군정기 때의 우익세력 역시 1950년대에 들어와 거의 모두 퇴조하였다. 미군정기 때 활동하던 청주지역 우익세력은 태극청년단장 朴己云을 비롯하여 14개 단체 70여 명으로,<sup>38)</sup> <표 5>와 같다.

이들 70명은 한국전쟁 전후 어떤 활동을 하였을까 그를 위해 앞에서 농지개혁 당시 충청북도 피분배 대지주 43명을 1945~1964년 사이에 충북지역에서 활동한 인사들과 상호 대조했던 것처럼, 일일이 검색하였다 그 결과 해방 전후 상공업자 10명(박기운, 남궁인, 김용식, 서재조, 홍순복, 김명직, 홍이식, 서병두, 권태성 이종찬), 관료 출신 3명(이화종, 한유정, 김창환) 등이 밝혀졌다. 그들 중 구연직과 박기운·연병호는 제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였으나, 그 뒤 실시된 제2~4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번이라도 출마한 인물은 박기운, 김동환, 홍순복, 장응두, 한정구, 최동옥, 김홍설, 이태희, 최순용 등 9명이나 되었다. 그중 박기운만이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상공업자의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청주상공회

<표 5> 해방기 청주지역 우익단체와 회원

우 익 단 체	회 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충북지부	구연직 김 탁 김동환 홍순복 장응두 한정구 최동옥 조대연 김명직 연병호 김중목 차근호 김완배
청년조선총동맹 청주지부	김 철 서병두 이학구 박계택 하건홍 이장오 이화종
태극청년단	박기운 이명하
유학생동맹 충북지부	김명환 김규환 이은전 민한기
대한노동연맹 청주지부	김 철
전국학생연맹 충북지부	이종찬 이장직 김진영 김창환 홍순언
백골단	홍정흠 권태원 홍이식
건설청년단	김용식 서재조 전만식 권태성 김상로
북부청년단	조수석 나호기 최정수
쇠고리동지회	이봉복 김용식 김홍설 오인탁 이재석 김용식 서재조 전만식 이태희 전종섭 정태룡 유명석 신준식 이봉하 남궁인 최순용 유만형 유길상 오택균 홍이식
애국부인회	임순도 조윤순 한유정
대동청년단 충북도단부	박기운 서병두 김홍설 김용식 오인탁 조수석
민족청년단 충북도단부	허 광 과창수
조선청소년군 충북총연대	홍순권 송경호 전재호 이상준 박창규 윤병한

\* 자료: 청주근세60년사화편찬위원회, 『청주근세60년사화』(1985), 303~309쪽.

38) 청주근세60년사화편찬위원회, 『청주근세60년사화』(1985), 303~309쪽.

의소 의원을 지내는 등 경제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김명직·박기운), 그 뒤 경제계에서 밀려났다.

이것으로 보아 해방기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우익세력 역시 박기운 외에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모두 퇴조하고 새로운 세력이 부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충주는 일제시대에 군청 촉탁으로 근무하다 해방기 우익 활동을 한 뒤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된 김기철<sup>39)</sup> 외에는 이렇다 할 경력을 지닌 자가 없었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지역정계를 나누는 큰 분수령이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신흥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신진 정치인들이 이승만정권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지역정계를 주도해 나갔으며, 그 여과장치가 선거였다. 그들의 연령층 역시 제3~5 대 국회의원 평균연령이 각각 43.3, 44.4, 46.5세였듯이 40 대 초반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 이전에 충북지역을 이끈 인물 가운데 선거에서 살아남은 박기운(청주)·신각휴(옥천)·김기철(충주)·곽의영(청원)<sup>40)</sup> 외에는 모두 퇴조하였고, 대신 이충환(진천)·이태용(제천)·이민우(청주) 등으로 대표되는 신진 정치세력이 그들의 고위학력과 지위 및 재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 III. 1950년대 충북지역 유지층의 분포와 성격

한국전쟁 전후 충북지역의 유지층은 해방공간과 농지개혁을 거치면서 대지주층이 거의 모두 몰락하고 기존의 상공인 역시 퇴조하는 가운데 신흥 상공인이 성장하고 선거를 매개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였다. 그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지역유지층이 형성되었는데, 그 결과는 1955년에 발간된 『忠北人土論』에 잘 나타나 있다.

1955년 전후 충북지역을 움직인 인사들이 총망라된 『忠北人土論』에는 모두 508명(在京人士 36명 포함)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국회 민의원 13명과 도의원 27명을 비롯해 충청북도청 국과장 27명, 각종 기관·단체장, 학교장 77명 상공계

39) 이원배(88세, 충주 거주) 증언

40) 곽의영, 『어둔 밤 촛불을 밝히며』(성신여대 출판부, 1987) 참조

대표, 면장 73명, 각종 조합장(이사) 등을 망라하고 있다 물론 이들 모두를 지역 유지층으로 볼 수 없지만, 지역유지층을 이루는 모집단을 이루고 있어 당시의 충청북도 지역유지층의 동향을 살펴 수 있으리라 본다.

1955년경에 충청북도를 움직인 508명중 충북 출신은 <표 6>과 같이 모두 374명이다. 출신지가 불명확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30명은 모두 타도 출신으로 <표 7>과 같다. 타도 출신자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특히 충청북도와 인접한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출신자가 각각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편이며, 고학력 출신자가 많은 서울 출신자는 두 번째로 많은 편이다. 이들은 주로 고위 관료나 교육·종교·금융계에서 활동하였는데, 충북도청 국과장 27명중 15명이 타도 출신자이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오래 전에 타도로부터 이주하여 토착화한 유지층이 많았는데, 1955년 당시 청주시 인사 112명중 60명이 타도 출신이며, 심지어 청주시장 李鍾岱(1897~?)는 함남 안면에서 출생하여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 1946년에 월남하여 청주에 정착한 인물이며(1960년에 민선시장으로 피선),<sup>41)</sup> 청주시의원 19명중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吳宰根을 비롯해 8명이 타도 출신자이다. 충주시의 경우도 청주시보다 적지만 55명의 인사 중 17명이 타도 출신자인데, 이들은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전매지청장, 우체국장, 자유당 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충주 출신은 주로 학교장·면장 등이었다.

<표 6> 1955년 충북 인사들의 지역별 출신자수

지 역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제천	단양	기타	계
인명수	35	74	21	31	25	25	60	29	37	24	10	2	374
비 율	4.3	3.7	2.3	3.4	2.5	3.6	4.3	2.9	2.4	2.2	1.8	0.5	3.1

\* 비율은 1955년 해당 시군 인구 1만명당 출신자수임(소수점 세자리수 반올림).

\* 자료: 金思達, 『忠北人土論』(淸州文化社, 1955).

淸州文化社, 『忠北寶鑑』(1956).

41) 청주시, 『淸州市誌』 下(淸주시지편찬위원회, 1995), 1207~1208쪽.

&lt;표 7&gt; 1955년 충북 인사중 타지역 출신자수

지 역	충남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서울	강원	평남	평북	함남	함북	황해	미국	계
인명수	35	8	14	8	4	5	20	4	9	9	6	3	4	1	130

\*자료: 金思達, 『忠北人土論』(淸州文化社, 1955).

이것으로 보아 1950년대 충북지역은 충북 출신자들이 독점적인 지위로 토착세력화하거나, 그들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움직여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같은 양상은 외부의 인적 자원이 지역내로 유입되어 지역 출신자와 타도 출신자의 균형 조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가능성도 있었으나, 지역 인재의 부족과 후진 양성의 부진으로 이어져 지역 저발전의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 1950년대 이후 충북지역에서 나타난 결과는 후자로 보아야 하며, 그遠因은 일제시대에 고등교육을 이수한 충북 출신이 부족한데 따른 결과이다.

다음은 지역내 지역별 출신자 특성을 알아보자. <표 6>에서 1955년 충청북도 인구 1만명당 평균 3.1명의 유지층이 있었는데, 그보다 많은 시군은 청주시·청원군·옥천군·진천군·괴산군이다. 특히 괴산군은 군단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와 같은 4.3명에 이르고 있는데, 충북 출신으로 서울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재경인사 36명중 괴산 출신이 무려 17명이나 된다. 괴산 출신의 충북 유지층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괴산 출신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충북선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표 6>에서 충북선이 지나가지 않는 보은·영동·제천·단양은 출신자수가 적으며, 특히 충북선과 단절되어 충청북도에서 고립적인 제천과 단양은 지역 인물이 극소수이다. 충주의 경우에도 충북선이 충주까지 연장되는 것은 1928년으로 1921년에 개통된 청주 주변지역보다 늦은 편이다. 반면에 괴산은 조치원·청주·청안(증평)에 이르는 충북선이 1923년에 연장 개통되어 증평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일찍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충북선 외에 일제하 역사적인 경험 역시 괴산 출신이 성장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시대 괴산은 홍명희로 대표되는 출중한 인물이 배출되었을 뿐 아니라, 충북지역에서 최초로 신간회가 조직되는 등 활발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sup>42)</sup> 이 같은 역사적 경험과 학맥은 지역사회를 일깨우고 후진들로 하여

금 열린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재경인사 36명중 괴산 출신자가 17명이고 그 가운데 12명이 전문대학 이상 수료자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일제하 괴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열린 지역공간이었고, 그 때문에 닫힌 지역 공간 출신보다 고학력 출신자와 고위직 유지층이 많았던 것이다.<sup>43)</sup>

실제 1950년대 지역 유지층은 학력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었다 <표8>은 충북에서 태어난 인사들의 학력 분포이다. 총 374명중 전문대학 이상은 32.1%, 중등 교육(중고등학교) 이수자는 44.9%이다. 중학교 이상이 모두 77%인 바, 1950년대 이미 중학교 이상의 학력 출신자들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중추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표 8> 1955년 충북 인사들의 학력 분포

학력	전문대 이상	중등교육	초등교육	한학·독학	불명	기타	계
인명수	120	168	17	20	46	3	374
비율	32.1	44.9	4.6	5.4	12.3	0.8	100

\* 자료 : 金思達, 『忠北人士論』, 清州文化社, 1955.

\* 중퇴자는 해당 학력에 포함하였으며, 각종 전문학교(체신학교·상업보습학교)와 특수학원 및 양성소 수료생 등은 중등교육 이수자로 분류하였다.

특히 충북지역내 중고등학교 출신 특정 학맥이 형성되어 있었다. 위 표에서 중고등학교 출신학교를 알 수 있는 인물은 모두 162명인데, 청주농업학교(청주농업고등학교) 출신자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청주고등보통학교(청주고등학교) 출신자가 22명이었다. 그밖에 충주고보 3명, 충주농업학교 4명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1950년대 충북지역의 학맥은 크게 1911년에 개교한 청주농업학교와 1924년에 개교한 청주고보 출신이 양대 산맥을 형성해 가고 있었으나, 그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정 학교의 독점적인 학맥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35년에 사립학교로 개교한 청주상업학교와 1947년에 개교

42)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괴산문화원, 1996) 참조

43) 괴산 출신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조선시대의 지역뿌리 외에 일제하 역사적인 경험과 교육, 사회 경제적인 조건, 학맥과 인맥 등 여러 측면에서 심도있게 규명되어야 하는 만큼 다른 연구과제를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한 청주대학 출신자는 각각 2명과 3명에 불과하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청주상고와 청주대학 출신자가 지역사회에서 약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950년대에 충북 유지층이 청주농고와 청주고등학교 출신자가 많은 것은 그들의 연령층과 관련이 있다. <표 9>에서 유력인사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40대 연령층은 그들이 10대였던 1920년대에 주로 중등교육을 이수하였는데, 1930년 이전에 개교한 중등학교는 청주상업학교(1911), 청주고등보통학교(1924), 충주농업학교(1929) 뿐이었다. 따라서 1950년대 충북 지역사회를 이끈 학맥은 청주상업학교와 청주고보 출신들로써, 특히 사범학교를 비롯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120명, 32.1%)의 경우 청주상업학교보다 청주고보 출신자가 훨씬 많고 고위직일수록 청주고보 출신 비율이 높은 만큼, 실제 청주고보 학맥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나, 아직 독점적인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1955년 충북 인사들의 연령별 분포

연령	20~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9	70~79	기타	계
인명수	3	22	70	115	115	98	40	20	6	19	508
비율	0.6	4.3	13.8	22.6	22.6	19.3	7.9	3.9	1.2	3.7	100

\* 자료: 金思達, 『忠北人土論』(淸州文化社, 1955).

당시 지역 유지층의 주력 연령층이 40대였던 점은 도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52년에 실시된 초대 도의회의원 선거 결과 전국에서 당선된 306명의 연령층은 36~40세가 가장 많은 76명이고 그 다음이 41~45세 58명이다. 충북 초대 도의원 28명의 연령층 역시 4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다. 1956년에 실시된 2대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전국의 도의원 437명의 연령분포 역시 41~45세가 가장 많은 121명이었다.<sup>44)</sup> 이것으로 보아 1950년대 지역 유지층은 해방 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50대 이후의 노년층이 퇴조하면서, 일제시대에 제도권 중등 내지 고등교육을 이수한 40대 연령층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충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44) 忠淸北道議會, 『忠淸北道議會史』(2000), 42, 178쪽

40대가 주축이 된 지역유지층은 고위관료, 각종 기관·단체장 등으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었다. 1955년 당시 충북인사의 지역별·분야별 분포 양상은 <표 10>과 같다. 이 표는 1955년에 시군별로 활동하던 유력인사 394명(타도 출신자 포함)을 지역별·분야별로 나눈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10> 충북인사의 지역별·분야별 분포

지 역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제천	단양	계	%
정 계	21	5	2	1	1	2	1	2	3	1		39	10.0
행정계	24	19	9	11	12	8	15	8	21	11	6	144	36.6
교육계	20	7	7	10	3	5	8	9	11	8	2	90	22.8
법조계	4				1				2	1		8	2.0
의료계	4	1					3		1			9	2.3
금융계	7				1				1	2		11	2.8
학 계	4											4	1.0
상공인	8					1	1	7	1			18	4.6
언론방송인	2											2	0.5
종교인	5							3				8	2.0
조합임원	3	5	3	4	4	5	2	4	4	4		38	9.7
사회단체	4								1			5	2.3
기타	6	4	2	1			2	1	1	1		18	4.6
계	112	41	23	27	22	20	32	25	55	29	8	394	100
%	28.4	10.4	5.8	6.9	5.6	5.1	8.1	6.4	14.0	7.4	2.0	100	

\* 자료: 金思達, 『忠北人土論』(淸州文化社, 1955).

첫째, 각 시군별 총 인사수는 모두 394명으로, 그중 청주가 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은 충주이다. 이것으로 보아 충청북도의 지역 발전축은 청주와 충주, 특히 청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천은 오늘날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58년에 충북선이 충주에서 제천까지 연장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천이 충청북도에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단양 역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유지층 역시 행정·교육계 인물 8명(2%)에 불과하였다. 1942년에 개통된 중앙선 철도는 아직 제천·단양지역 출신의 유지층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분야별 인물분포는 행정과 교육 및 경제 인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위 표에서 행정계 인사는 시장·군수·면장을 비롯해 고위관료와 각급 공공기관장(경찰서·세무서·전매지청·농업기술원·형무소·우체국·역)을 분류하였고, 교육계 인사는 교육감·교장, 경제인사는 정당인·의원 등을 분류하였다. 이들이 각각 36.6%, 22.8%, 10.0% 도합 69.4%를 점하고 있는 사실은 관료층과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움직여갔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교육계 인사는 정치 지향성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 36.6%에 이르던 관료층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세력으로 활동하였다. 이런 경우 지역사회는 국가권력층의 변동과 지배이데올로기에 그대로 노출되며,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고 자기 논리로 대항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셋째, 각 시군의 분야별 인물분포는 청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행정과 교육계 인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청주 외에는 학계·언론방송인이 한 명도 없으며, 법조계·의료계·금융계·종교계·사회단체 인물도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조합임원은 수리조합·경작조합·금융조합장이나 이사들로서 비정치적이다. 즉, 청주 외의 각 시군은 시장·군수를 중심으로 각종 기관장(경찰서·세무서 등)과 면장·학교장·조합이사 등이 유지집단을 이루면서 지역사회를 이끌었다.

이 같은 지역 유지층 분포는 기본적으로 농업을 위주로 한 지역사회경제구조 위에 국가권력체계가 뿌리내리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청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유지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정치변수와 권력 작동에 무방비 상태로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었다.

다만, 청주는 관료층과 정계·교육계 인사의 비중이 58%로 매우 높기 때문에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었으나, 각계 인사가 고루 분포하고 있어 현실 비판의식과 그에 바탕을 둔 정치지형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실시된 제3·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당선된 예가 없을 뿐 아니라, 1952년과 1956년에 선출한 민선시장 역시 모두 무소속 출신이 당선되었다.<sup>45)</sup>

#### IV. 맷 음 말

이상으로 한국전쟁 전후 1950년대 충북지역 유지층의 변화 양상과 그 성격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충북지역 유지층의 성격이 갖는 일반성과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일제시대에 성장해 지역유지층으로 활동한 충북지역의 대지주층은 해방공간과 농지개혁을 거치면서 거의 모두 몰락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혹 고향에 남아 있었을지라도 지방의원이나 면장·상공인 등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기반이었던 토지와 삶의 방식이었던 전통사회가 붕괴되고 새로운 삶의 지형에 적응하지 못한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였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에는 대지주의 토지자본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어 지역 내 산업자본으로 전화되지 못한 결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전쟁 전후 지역경제를 이끈 상공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 해방공간에서 충북지역 경제계를 이끈 인사들은 주로 귀속사업체를 관리하거나 각종 경제 관련 조합장을 맡은 친권력형 인물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들 대부분은 귀속사업체가 불하되는 과정에서 사업체를 불허받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 충북지역 경제계를 이끈 인물들은 귀속사업체를 불허받거나 새롭게 사업체를 경영한 이들이 주도하였다. 그들은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자본도 영세하였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한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으며 정치적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즉,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친권력층이 충북지역 경제계 주도층으로 새롭게 부상하였으나, 그들은 독자적인 경제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충북 지역경제의 낙후를 반영한 것이자 그 이후 경제적인 저발전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지역유지층의 변화는 정계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전쟁 이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거나 해방공간에서 우익세력으로 활동한 인물들 대부분은 한국전쟁 이후 여러 선거를 통해 퇴조하고, 신흥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신진 정치인들이 이승만정권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지역정계를 주도해 나갔다. 그들은 주

---

45) 이승우, 『도정 반세기』(충청리뷰사, 1996), 107~109쪽

로 40대 초반의 고학력자이며 그들의 지위와 재력을 바탕으로 급부상하였다. 적어도 충북지역의 경우 친일파와 그 후손, 또는 일제시대에 고위관료를 지낸 인물들이 1950년대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정치·경제계의 지역유지층이 변화하는 가운데 1950년대 중엽 충북지역을 이끈 인사층은 아래로 면장에서부터 위로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500여 명이었다. 그들중 충북 출신자와 타도 출신자의 비율이 3:1 정도였는데, 고위층일수록 타도 출신자가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1950년대에는 충북 출신자들이 독점적인 지위로 토착세력화하거나 그들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움직여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외부의 인적 자원이 지역내로 유입되어 지역 안팎 출신자의 균형 조화를 통한 지역 발전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지역 인재의 부족과 후진 양성의 부진으로 이어져 지역 저발전의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 1950년대 이후 충북지역에서 나타난 결과는 후자로 보아야 하며, 그 원인은 일제시대에 고등교육을 이수한 충북 출신이 부족한데 따른 결과이다.

충북지역내 시군별 출신자수는 평균 3.1명이었는데, 청주와 괴산만은 4명이 넘었다. 그에 반해 제천과 단양은 2명 안팎으로 지역내의 지역간 차이가 컸다. 그것은 일제시대 도시·교통·교육의 발전정도와 비례하는 것으로써, 특히 괴산 출신의 인사들이 앞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한말·일제하 역사적인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괴산은 전통적으로 지적 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일제시대에 흥명희와 같은 인물이 배출되고 신간회가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되는 등 외부세계에 깨여있는, 보다 열린공간이었다. 그것으로 보아 지역내의 인적 자원 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바탕에 둔 열린 의식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충북지역 유지층은 중학교 이상의 학력 출신자들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중추세력으로 부상하였는데, 그 때문에 그들의 연령층 역시 40 대 초중반이 주축을 이루었다. 또한 청주고보와 청주상업학교 출신자들이 양대학맥을 이루고 있었으나, 특정 학교 출신자들이 독점적인 학맥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외부 출신자의 비율이 높고 다른 지역, 특히 서울에서 중학교 이상을 이수한 고위인사 층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유지층은 주로 청주에 밀집해 있었으며, 군단위 지역의 경우 행

정관료와 교육계인사가 거의 전부였다. 그밖에 군단위 지역은 각종 조합의 임원이 3~4명씩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군단위 지역은 행정·교육·경제(조합) 계의 대표들이 지역유지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충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청주의 경우에는 언론방송계·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분포해 있어 현실 비판의식과 그에 바탕을 둔 정치지형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청주지역은 1950년대에 야당 성향이 매우 강해 3차에 걸친 국회의원선거와 2차의 민선시장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당선된 예가 한 번도 없었다.

그렇지만 청주 외의 각 시군은 시장·군수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각종 공공기관장과 면장·학교장·조합이사 등이 유지집단을 이루면서 지역사회를 이끌었다. 그 중에서도 학교장이나 조합이사들은 특성상 비정치적이므로 실질적으로 행정관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런 경우 지역사회는 국가권력과 지배이데올로기에 그대로 노출되며, 외부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충북지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도에 비해 이승만정권, 즉 자유당이 손쉽게 뿌리를 내리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다. 더욱이 농지개혁에 따른 토지자본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상공인과 토착세력의 성장이 미약했던 1950년대의 충북지역은 일제시대에 구조화된 저발전이 확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장기지속적인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經濟年鑑』, 1949.  
 財務部, 『法人臺帳』, 연도미상.  
 中外商工情報社, 『全國商工信用錄』 서울: 중외상공정보사, 1948.  
 國民日報社, 『忠北年鑑』 청주: 국민일보사, 1952.  
 忠淸北道, 『道勢一覽』 청주: 忠淸北道 1955.  
 大韓商工會議所, 『全國製造業要覽』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955.  
 金思達, 『忠北人土論』 청주: 清州文化社, 1955.  
 韓國產業銀行, 『礦業 및 製造業事業體名簿』 서울: 한국산업은행, 1959.  
 忠淸人土集編纂委員會, 『忠淸人土集』 청주: 충청인사집편찬위원회, 1957.

- 忠淸北道, 『道勢一覽』 청주: 忠淸北道 1960.
- 中央選舉管理委員會, 『歷代國會議員選舉狀況』,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3.
- 法律新聞 忠北支社, 『忠北人土錄』 청주: 上黨出版社, 1964.
- 청주군세60년사화편찬위원회, 『청주군세60년사화』 청주: 청주군세60년사화편찬위원회, 1985.
- 곽의영, 『어둔 밤 촛불을 밝히며』 서울: 성신여대 출판부, 1987.
- 淸州商工會議所, 『淸州商議七十年史』 청주: 청주상공회의소, 1989.
- 이승우, 『도정 반세기』 청주: 충청리뷰사, 1996.
- 忠淸北道議會, 『忠淸北道議會史』 청주: 충淸북도의회, 2000.

● 투고일: 2003. 9. 2

● 심사완료일: 2003. 11. 17

● 주제어(key word): 1950's(1950년대), Chungbuk region(충북지역), high class(유지층)